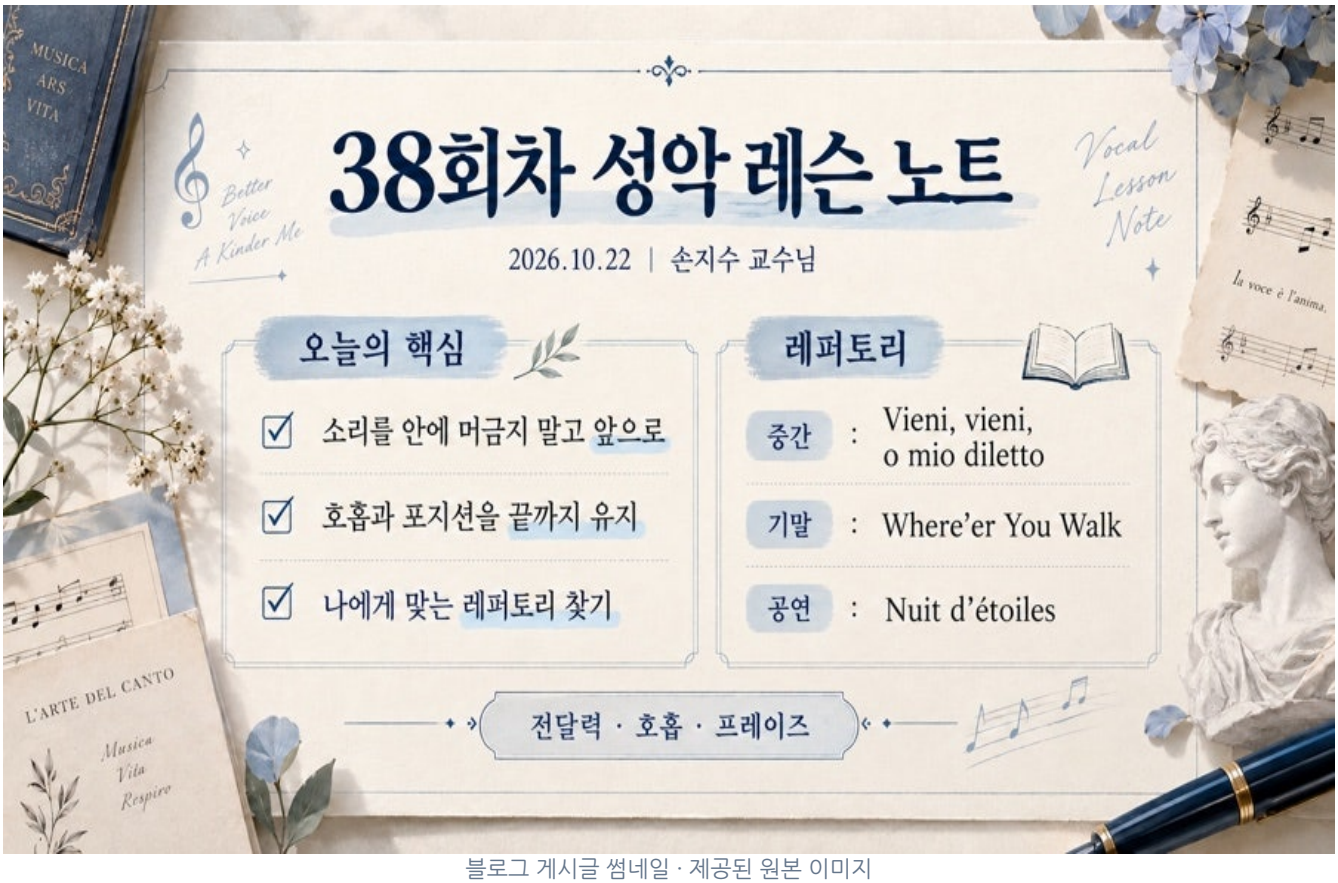
38회차 성악 개인레슨 노트

2026.10.22(목) | 지도교수: 손지수 교수님



블로그 게시글 썸네일 · 제공된 원본 이미지

원문 블로그 주소

https://m.blog.naver.com/simplybeautiful_lao/224451247952

본 문서는 공모전 제출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한 38회차 레슨 노트 썸네일과 게시글 원문을 한 파일로 묶은 자료입니다. 블로그 게시물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1. 발성 점검 및 종합 피드백

9월 10일 이후 약 6주 만의 개인레슨. 폴란드 연수 이후 새롭게 배운 발성법과 합창단 메조세컨 활동이 기존 발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했다.

① 발성 방향 및 상태

- 기존 발성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음.
- 상행 스케일에서 저음으로 시작할 때보다, 하행 스케일에서 고음으로부터 내려올 때 저음의 소리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
- 다만 소리가 아직 충분히 앞으로 뻗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 소리의 전달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호흡과 포지션을 유지하며 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함.

② 허스키한 음색에 대한 상담

성악을 배우기 전에는 허스키한 질감이 상당히 강했으며,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 노래 녹음에서는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고 느낌. 이것이 본래 음색의 특징인지, 발성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교수님께 질문함.

교수님께서는 현재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시며, 말소리는 맑지 않느냐고 말씀하심. 이를 바탕으로 노래할 때 남아 있는 허스키한 질감 역시 발성이 발전하면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심.

핵심: 현재의 허스키한 질감을 모두 타고난 음색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으며, 발성 훈련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③ 소리의 전달력

- 소리를 입안에 머금거나 붙잡아두지 말 것.
- 호흡과 포지션을 함께 유지하면서 소리를 앞으로 모아 멀리 보내기.
- 고음과 멜리즈마에서도 호흡의 흐름을 멈추지 않기.
- 입천장을 타고 소리가 흘러가는 듯한 감각 활용하기.
- 프레이즈 끝에서 소리가 떨어지거나 죽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기.

④ 발성 시범 및 체감

교수님의 시범을 따라 소리를 앞으로 모아 보냈을 때, 이전보다 소리가 선명하게 밖으로 전달되는 차이를 경험했다. 평소 혼자 노래할 때는 소리를 안에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나, 이번 레슨을 통해 소리의 방향과 전달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02. 곡별 레슨 피드백

① 〈Vieni, vieni, o mio diletto〉

교수님 평가: 소리가 깔끔하고 방향성이 좋음.

-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내기.
- 프레이즈의 흐름과 소리의 진행 방향 유지하기.
- 선율이 끝날 때까지 호흡과 포지션의 연결 유지하기.

레퍼토리 결정: 성악전공실기6 중간고사 곡.

② 〈Where’er You Walk〉

교수님 피드백: 소리를 붙잡지 않고 트럼펫이 울려 퍼지듯 생기 있고 선명하게 전달할 것.

- 호흡을 확장하며 프레이즈에 활력 부여하기.
- 16분음표와 32분음표의 리듬을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살리기.
- Turn your eyes 구간에서 입천장을 타고 소리가 나가는 감각 활용하기.
- 프레이즈 끝에서 소리가 약해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주의하기.
- 소리를 계속 밖으로 보내며 음악의 흐름 유지하기.

레퍼토리 결정: 성악전공실기6 기말고사 곡으로 준비.

③ 〈Sposa son disprezzata〉

교수님 평가: 좋은 곡이지만 음역이 낮고 어두워 현재 목소리의 장점과 음색을 보여주기에는 아쉬움.

-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음악적 에너지를 유지하기.
- 호흡을 붙잡지 않고 점차 소리의 초점을 모아 밖으로 보내기.
- 복부와 허리, 하체의 지지를 활용하기.
- 호흡과 레가토를 훈련하는 곡으로 활용하기.

레퍼토리 결정: 시험곡보다는 발성 및 호흡 훈련곡으로 활용.

④ 〈Nuit d’étoiles〉

불어딕션 수업과 함께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드뷔시 가곡.

교수님 평가: 바로크 세 곡보다 현재 목소리에 더 어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곡 리딩 후 긍정적인 반응을 받음.

- 첫 프랑스 가곡으로 전곡 리딩 진행.
- 비교적 편안한 음역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점 확인.
- 향후 발성과 음악적 표현을 발전시킬 레퍼토리로 선정.

레퍼토리 결정: 11월 17일 손지수 교수님 제자 아트리움 콘서트 공연곡으로 추천받음.

03. 레퍼토리 적합성에 대한 종합 평가

- 이번 실기6 바로크 레퍼토리에서는 본래 음색과 고음역의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
- 모차르트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의 폭이 더 넓었을 것이라는 의견.
- 좋아하는 곡과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곡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드뷔시 〈Nuit d'étoiles〉를 새로운 공연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보기로 함.

04. 다음 레슨 준비곡

- Handel, 〈Lascia ch'io pianga〉
- Handel, 〈Care selve〉
- Debussy, 〈Nuit d'étoiles〉

기존에 배웠던 헨델 두 곡을 다시 점검하고, 드뷔시 가곡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05. 앞으로의 연습 과제

발성

- 소리를 머금거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보내기.
- 고음과 멜리즈마에서 호흡과 포지션을 함께 유지하기.
- 프레이즈 마지막까지 소리의 선명도와 진행 방향 유지하기.
- 목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소리의 전달력 높이기.

레퍼토리

- 중간고사: 〈Vieni, vieni, o mio diletto〉
- 기말고사: 〈Where'er You Walk〉
- 아트리움 콘서트 추천곡: 〈Nuit d'étoiles〉

레슨 계획

- 새로운 발성 감각을 안정적으로 익히기 위해 주 1회 정도의 꾸준한 레슨 권고.
- 12월 평생교육원 개인레슨 6회 수강 검토.

오늘의 핵심

현재 발성의 방향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리의 선명도와 전달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소리를 안에 머금지 않고 호흡과 포지션을 연결하여 프레이즈 마지막까지 살아 있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